

일일 기승 서울 8회·부경 7회로 제한

1위 상금 비중 축소 편중현상 해소
조교사 출전 장려금 9위까지 지급
상금우대 국산 저연령마 경주 확대

지난해 한국경마는 ‘돌풍’이 경마월드컵 결승전인 두바이 월드컵에 진출했고, ‘블루치퍼’는 경마 올림픽인 미국 브리더스컵마일 경주에서 3위로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글로벌 경주로 열린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에서는 국내 경주마들이 최초로 우승하는 등 한국경마를 세계에 알렸다. 2012년 코리아던터비 우승마인 ‘지금 이순간’의 자마 ‘심장의고동’이 국산 씨수말 자마로는 최초로 대상경주(일간스프츠배)에서 우승한 것도 지난해였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올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경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0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경마시행 안정성 강화, 국산마 경쟁력 제고, 경주 상품성 제고, 우수마 선발체계 고도화, 생산 환류체계 정착 등이다.

지난해 말 한국경마기수협회의와 합의사항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수의 하루 기승 횟수를 서울 8회, 부산경남 7회로 제한하고 1위 순위상금 비중을 축소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 안정성 강화, 국산마 경쟁력 제고, 경주 상품성 제고, 우수마 선발체계 고도화, 생산 환류체계 정착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더 재미있는 경주와 국산 경주마의 선전 등 경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했다. 상금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하위등급 순위상금을 25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하고, 8위까지 지급하던 조교사·말관리사 출전 장려금도 9위까지 확대했다. 바뀐 제도를 도입한 1월 첫 주 경주에서는 기수의 기승횟수 편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경마시행계획에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한국경마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정한 한국경마 100주년, 국산마 생산 3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국산경주마의 코리아컵·스프린트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계획을 담았다.

경주상금을 우대하는 국산 저연령마(3세 이하) 경주를 확대하고, 2세 최고마조기 발굽을 위한 루키스테이크스(L) 경주를 신설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하반기 6개의 대상 경주를 묶어 코리아프리미어 시리즈(오너스컵-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대통령배-KRA컵클래식-그랑프리)를 신설한다.

월드 팬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명마의 이름을 딴 대상경주도 신설된다. 장애크를 딛고 최고 암말의 영예를 안은 ‘루나’를 추억하기 위한 ‘루나Stakes(L, 국산 3세 암말 대상경주)’, 국산 경매마로 연도 대표마 자리에 오른 ‘아름다운질주’

를 기리는 ‘아름다운질주(L, 국산 2세 경매마 대상경주)’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부마 또는 모마가 경주 퇴역마인 국산마만 출전할 수 있는 대상경주를 개최해 제2의 ‘심장의고동’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은 “한국경마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진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토대에서 경마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한국마사회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마제도 시행을 통해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주를 선사하고 국내외에서 우리 경주마들의 선전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마·토토

9

2020년 1월 10·11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합완식 기수 개인 통산 700승 달성



합완식 기수

서울 경마공원의 합완식 기수(42세, 52조)가 4일 개인통산 700승을 달성했다. 서울 4경주에서 ‘싱그러운 타임’과 호흡을 맞춰 접전의 승부 끝에 2위를 목차로 제치며 승리했다. 합완식 기수는 “새해 첫 경마일에 700승을 달성해 기쁘다. 팬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합완식 기수는 1998년 데뷔해 561회 기승, 승률 12.5%, 복승률 25.3%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수경력 10년, 500승 이상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영예기수’에 이름을 올렸다.

소형경마장 사업타당성 결과 발표

한국마사회는 소형경마장 설치 모델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소형경마장은 2018년 마사회 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핵심과제다. 마사회는 말산업 전문연구기관인 청마컨설팅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마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저 수준의 경주를 봄·가을 위주로 편성 시 총 면적 21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입지권역은 시장성, 설치매력도, 경마인프라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호남권(1.1), 충청권(0.9), 강원권(0.6) 순이다. 토지비용을 제외한 총 투자 규모 907억과 적정 신규 고객창출 가정 시 개장 5~8년차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닉스마 ‘미스터크로우’ 씨수말로 국내 복귀

좋은 체형·단거리 유전자 기대감

케이닉스(K-NICKS) 경주마 ‘미스터크로우’가 미국에서 돌아와 국내 씨수말로 복귀한다. 2월부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장수목장에서 생산능가 교배지원에 나선다.

마사회는 경주마 선발기술인 케이닉스를 활용해 경주마 개량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수한 경주마를 조기에 발굴해 현지출전으로 자질을 검증하고, 국내에 들여와 우수한 명마를 생산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수 명마확보는 물론 국내산마의 수출확대도 가능해 국내 생산능가의 소득창

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케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경주마 선발 및 최적교배프로그램이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말의 DNA를 검증된 말의 DNA와 비교해 유전능력을 산출하고 선발에 이용할 수 있다. 씨암말의 열성 유전자를 업그레이드할 씨수말을 찾는 것은 물론, 태어날 자마의 적성과 경주능력까지 추정할 수 있다. 정확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 3건이나 되고 유명 학술지에 다수 올랐다. 이 기술로 마사회는 미국 경매 등에서 잠재력이 뛰어난 말을 저렴하게 구매해왔으며, 미스터크로우도 그 중



미스터 크로우

하나였다.

2014년 미국에서 출생한 미스터크로우는 2016년 마사회가 매입했다. 이후 주요경주에서 줄곧 좋은 기량을 선보여 왔다. 총 16번 출전에 4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기록했다. 수득 상금은 34만8936달러(약 4억 원)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켄터키 처칠다운스 경마장에서 열린 얼라원스 경주에서 우승했고, 2018년 벨모운파크의 보스버그(H)와

처칠다운스의 아리스티데스(G3)와 같은 큰 무대에서도 준우승했다. 그 해 미국 브리더스컵 출전권도 따냈으나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특히 2017년 미국 사라토가 경마장의 미슬리마특별 경주에서 11.5마신(27.6m) 차 대승을 거두며,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미스터크로우의 스피드는 당시 미국 3세마 중 최고였다.

미스터크로우의 국내 씨수말 데뷔는 여러 모로 기대를 모은다. 좋은 체형, 우수한 단거리 유전자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는 넥스고와 같은 탁월한 케이닉스마를 보유하고 있다. 미스터크로우는 북미 주류혈통으로 빠른 스피드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어 국내산마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정용운 기자



농구팬 68% “1위 KGC, 밀바닥 LG 쥘이야”

농구토토 승5패 2회차 중간집계
마이애미, 브루클린전 V 60% 폭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0일(금)과 11일(토) 사이에 벌어지는 미국프로농구(NBA) 9경기와 국내남자프로농구(KBL) 5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2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브루클린-마이애미(4경기)전에서 원정팀 마이애미의 승리 예상이 60.39%로 나타났다. 양 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23.88%로 나타났고, 홈 팀 브루클린의 승리 예상은 15.73%로 집계됐다.

현재 마이애미는 26승10패로 동부컨퍼런스 3위에 올라있고, 브루클린은 16승20패로 동부 컨퍼런스 8위를 기록 중이다.

6일 마이애미는 포틀랜드와의 맞대결에서 122-111로 승리했다. 밀라드와 맥컬럼 등이 소속되어 있는 포틀랜드의 전력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였다. 마이애미의 드라기치는 3점슛 10개를 시도해 7개를 성공시키는 등 29점 13어시스트로 활약했고, 아데바요 역시 20득점 및 8리바운드를 작성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다.

이처럼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순항하고 있는 것에 반해 브루클린은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다. 부상 중인 카이리 어빙을 대신해 스펜서 던위드가 에이스를 맡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방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맞이하는 LA 클리퍼스의 승리 예상은 77.92%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 팀의 5점 차 이내 접전승부 예상과 골든스테이트의 승리 예상은 각각 11.11%와 10.97%를 기록했다.

KBL에서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양 KGC가 68.44%로 국내프로농구 경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양 팀의 5점 이내 접전승부 예상은 22.05%를 차지했고, 원정팀 창원 LG의 승리 예상은 9.51%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고양 오리온-부산 KT(41.84%)전, 인천 전자랜드-원주 DB(40.41%)전, 서울 SK-전주KCC(40.16%)은 모두 양 팀의 5점 이내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고됐다.

이번 농구토토 승5패2회차 게임은 10일(금) 오후 6시50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축구 승무패 2회차 리버풀 승 64%

케이토토가 오는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7경기와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토트넘(홈)-리버풀(원정)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63.77%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20.17%로 나타났다, 홈 팀 토트넘의 승리 예측은 16.06%를 기록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한 우승 후보 리버풀은 현재 리그에서 19승1무로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득점 49점에 실점은 단 14점으로, 공수 양면에서도 뛰어난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는 리버풀은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로 승리를 거둔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4승1무로 압도적이다. 특히 5경기에서 모두 2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의 수비진을 괴롭혔다.

반면 팀 최고의 득점원 해리 케인을 부상으로 잃은 토트넘은 중원의 핵인 시소코까지 부상을 당하며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손흥민 역시 컨디션 난조에 빠지며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



트넘으로서는 이번 리버풀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승무패 2회차는 11일(토) 오후 9시 2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토토는 소액베팅이 진짜 재미

스포츠토토, 새해에도 적은 금액과 소조합으로 더욱 즐겁게 참여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적은 금액과 소조합으로 참여할수록 스포츠베팅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토토에서는 스포츠베팅의 진정한 재미와 건강한 구매환경을 만들기 위해 게임 당 최소 참여금액을 100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최대 구매 한도 역시 합법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는 5만 원, 그리고 전국 6500여 개의 판매점에서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미를 느끼고 동시에 과도한 몰입까지 예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토토는 소조합(2~3경기)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인기 게임인 ‘프로토(PROTO)’의 경우 최소 2경기부터 최대 10경기까지 조합할 수 있다. 조합 경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배당률은 높아지지만, 한 경기만 틀려도 적중에 실패하게 되는 프로토의 특성상 적중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자신 있는 경기만을 선택해 소조합으로 적중의 기쁨을 누리는 스포츠팬들이 많아지고 있다.